

폐생검조직소견은 세포도말소견과 동일한 형태학적 소견을 가진 종양세포들이 섬유화로 두꺼워진 흉막에 불규칙한 작은 세포소나 불규칙한 내강을 만들면서 일부 유두상 구조를 가지며 증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림프구 또는 형질세포들이 사이사이에 섞여 관찰되었다. 흉막강내 삼출액의 세포군집절편과 개흉폐생검조직으로 실시한 면역조직화학염색상 조양세포가 keratin 과 EMA 에는 양성이었다고 CEA, Leu-M1 과 Vimentin에 음성을 나타내었고 조직화학염색상 PAS에 양성, Alcian-blue 염색에 국소적으로 양성을 나타내었고 D-PAS와 Mucicarmin 염색은 음성을 나타내었다.

7. 복수의 말초 T 세포 림프종

- 1 례 보고 -

Peripheral T cell Lymphoma in Ascitic Fluid

- A case report -

인하대학교 인하병원 해부병리과 및 병리학 교실*

김준미, 주영채, 이숙아, 황태숙*, 김영배*

복강이나 늑막강의 삼출은 림프종이나 백혈병에서 흔히 동반되는 합병증이나 삼출액내에서 림프종을 진단하는 경우는 암종에 비해 매우 적다. 성숙된 림프구와 닮은 세포가 나타날 때에는 진단이 어려운데 대개 삼출액을 초래하는 림프종이 B 세포형이기 때문에 T 세포와 B 세포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적 염색을 해서 염증성 삼출액과 감별할수 있다. 그러나 말초 T 세포 림프종의 경우는 T 세포로 구성된 삼출액을 보이므로 감별이 안되며 조직내에서 말초 T 세포 림프종의 소견은 기술되어 있지만 세포학적 검사에서는 문헌보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단에 어려움이 있다. 저자들은 21 세 여자 환자의 복수에서 말초 T 세포 림프종을 진단하고 위내시경 검사상 T 세포 림프종이 확진된 1 례를 경험하고 보고하는 바이다.

환자는 2~3 개월 전부터 상복부 동통이 있다가 10 일 전부터 복부 팽만과 상복부 종괴가 만져져서 내원하였다. 복수천자액의 비중은 1.035 였고 적혈구 30,000/mm , 백혈구 1,500/mm , 림프구 85% , 단백질 1,800mg/dl, LDH 306 IU/l 였다. 세포학적 검사에서 Papanicolaou 염색상 다수의 이형성 림프구가 관찰되었는데 세포 크기가 정상 림프구의 2~5 배 가량으로 불규칙하고 핵은 다분엽상과 과색염증을 보였다. 염색질이 조대하고 세포질의 양은 적었다. 다수의 정상 림프구와 호중구 및 중피 세포도 관찰되었다. 위내시경 검사와 함께 시행한 조직 검사상 미만성 대세포성 림프종이 있었으며 T 세포에 대하여 양성을 나타내었다.